



질기고! 독하고! 당당하게! 우리가 이겼습니다!

2017년 11월 13일, MBC 총파업 7일 차 여의도 방송문화진흥회 집회 현장.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 재적이사 아홉 명의 이사 중에 여섯 분의 이사가 출석을 하셨습니다. 김장겸 대표이사의 해임 결의안에 대해서 다섯 분의 이사가 찬성을 하시고 한 분은 기권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김장겸 대표이사의 해임을 결의합니다.”

땅! 땅! 땅!

와~~ 만세를 하며 소리를 지르는 사람들, 앉은 채 박수 치는 사람들, 일어나서 부동켜안는 사람들, ‘김장겸 구속’이라고 쓰여 있는 팻말을 흔드는 사람들, 두꺼운 점퍼 속으로 고개를 넣고 조용히 눈 주변을 닦는 사람들, 이 순간을 기록하기 위해 휴대폰을 쥔 채 녹화하고 있는 사람들...

방문진 이사들이 ‘김장겸 사장 해임안’을 가결하는 순간, 집회용 차량에서 생중계되는 모습을 지켜보던 MBC 조합원들의 모습이다. 집회 대오의 가장 앞에서 마이크를 잡은 김연국 위원장은 감정이 북받쳐 올라 한참을 흐느꼈다. 몇십초의 시간이 흐른 뒤, 김연국 위원장은 양손으로 마이크를 꼭 쥐고 어렵게 조합원들에게 “우리가 이겼습니다!”라고 외쳤다.



MBC 노동조합원들은 김장겸 사장이 해임되는 것에 왜 이렇게 환호했을까? 지난 세월 MBC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2007년 대선 기간에 BBK 실세 소유주 논란이 거셌다. MBC는 선거 전날까지 의혹을 제기하였고 대선 이후에는 BBK 특검 관련 보도를 지속적으로 했다. 2008년 4월, MBC PD수첩은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를 시작으로 정부의 쇠고기 협상 태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방송을 여러 차례 하였다. 이 방송은 시민들을 광화문 광장으로 나오게 하였고, 이명박 대통령은 특별 기자회견을 열어 쇠고기 파동에 대해 사과했다. 이처럼 이명박 정부 초기에는 언론의 권력에 대한 비판과 감시가 진행되고 있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 아래에서는 이러한 언론 본연의 기능은 오래갈 수 없었다.

이명박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진 최시중 씨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임명이 된 후 MBC에 대한 장악이 시작되었다. 검찰은 명예훼손과 업무 방해 혐의로 고발된 PD수첩 제작진 이춘근 피디와 김보슬 피디를 체포하였다. 뉴스데스크 신경민 앵커가 교체되었고 손석희 아나운서가 100분 토론에서 하차하였다. 김우룡 방문진 이사장의 압박을 받던 엄기영 사장은 사퇴하였고 후임으로 이명박 대통령과 친분이 있다고 알려진 김재철 씨가 사장으로 임명되었다.



2010년 3월 김우룡 이사장은 “김재철 사장, ‘큰집’ 불려가 조인트 맞고 깨진 뒤 좌파 정리했다.”라고 <신동아>에 인터뷰를 하였다. 4월 국민의 눈과 귀가 천안함에 쏠려 있을 때, 김재철 사장은 노동조합과의 합의를 깨고 황희만 전 보도본부장을 부사장으로 임명하였다. 노동조합은 김우룡 이사장의 ‘큰집 조인트’ 발언과 ‘황희만 부사장 임명’을 ‘이명박 정권의 MBC 재편’ 의지로 받아들이고 총파업에 돌입하였다.

조합원 수보다 많은 MBC 구성원 1,028명이 ‘김재철 사장 퇴진 성명’에 이름을 걸었다. 이근행 위원장은 단식에 돌입했고 60명의 조합원은 자발적으로 단식에 동참하였다. 39일간의 총파업에도 김재철 사장은 물러나지 않았다. 파업을 중단하기 위해 4일간의 총회와 ‘파업 중단 찬반’ 투표를 할 정도로 조합원들은 MBC를 지켜내겠다는 의지가 강했다.

김재철 사장은 조합원들이 업무에 복귀하자 본격적으로 노동조합 탄압에 나섰다. 이근행 노조위원장과 정대균 진주MBC 지부장을 해고하였고 전국 103명에 이르는 조합원들을 무더기로 징계하였다. 2011년 1월에는 단체 협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인사



평가 시 최저등급인 'R등급'을 강제로 할당했다. 연임에 성공한 김재철 사장은 시사교양국을 편성본부로 이관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라디오 시사프로그램 PD를 교체하였고, 당시 MBC 라디오 광고 판매율 2위 프로그램인 '세계는 그리고 지금 우리는'의 진행자 김미하 씨를 교체하였다. PD수첩 PD 11명 중 6명을 용인드라마개발단, 경인지사 등 타부서로 발령을 냈다. 진주, 창원 MBC를 강제로 통폐합했다.

MBC뉴스는 침묵과 왜곡으로 시청자의 외면을 받았다. 심지어 기자들은 취재현장에서 'MBC는 물러가라'는 야유와 손가락질을 받았다. 기자협회는 보도국 수뇌부에게 책임을 지고 사퇴하기를 요구하였고, 회사가 대응하지 않자 제작거부에 들어갔다. 노동조합은 MBC뉴스의 추락, 사내 민주적인 시스템의 붕괴, 제작 자율성 침해 등 총체적으로 무너진 MBC의 현주소를 확인하고 공영방송 MBC를 재건하기 위해 종결 투쟁에 들어갔다.

시간이 지날수록 파업에 참여하는 구성원의 수는 늘었다. 김재철 사장은 2년 동안 법인카드 사용액 7억 원, 여성 무용가 J씨에 대한 특혜, '가명' 사용, '차명폰' 사용 등 끊임없이 비리 의혹이 제기되었다. 시민들은 노동조합에 호의적이었다. 김재철 퇴진과 구속 수사를 촉구하는 서명 인원이 한 달여 만에 70만 명을 돌파하였고 파업 콘서트는 항상 장사진을 이뤘다. 그러나 김재철 사장은 물러나지 않았다. 회사는 노동조합을 상대로 195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내고 집행부 개인 재산에 가압류를 신청했다. 파업 대체인력으로 보도국 46명을 포함하여 총 93명의 인력을 채용했다. 6명을 해고하고 98명에 대해 중징계를 내렸다. 170일의 파업을 끝내고 돌아온 조합원 중 131명을 징계, 교육, 부당 전출로 본연의 업무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였다. 760여 명에게는 인사평가 최하 등급인 'R' 등급을 부여했다. 회사의 탄압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PD수첩 작가 6명을 전원 해고하고 영상취재부를 해체하였다. 보도국과 시사제작국에 고화질의 CCTV를 증설하였고 트로이캣 프로그램을 통해 사내 온라인 활동을 무차별로 사찰하였다.

MBC 뉴스는 편파적인 왜곡 보도로 점차 공정성을 잃어 갔다. 2012 대선 때는 '안철수 논문 표절', '정동영 상임고문의 노인 폄하



발언'이 문제가 되었고, 세월호 사건 때는 박상후 전국부장이 '유가족의 조금증이 민간 잠수사의 사망을 불렀다'는 보도를 하였다. 김장겸 보도국장은 편집 회의에서 세월호 유가족에 대해서 "완전 깡패네. 유족 맞아요?"라는 발언으로 논란이 되었고 세월호 영상 관련에서는 실종자 학생이 찍은 '휴대폰 영상'은 사용 금지라는 보도지침을 내렸다. 'MBC의 세월호 보도 참사'에 대해서 실명으로 인터넷에 사죄의 글을 올린 권성민 피디는 중징계를 받았고, 편파 왜곡 보도 논란이 계속되었던 김장겸 보도국장은 후에 보도본부장을 거쳐 MBC 사장이 되었다.

단협이 해지되고 노동조합에 전임자를 둘 수 없어서 육아휴직과 파업으로 노동조합을 유지하던 MBC에 시민들은 다시 기회를 주었다. 최순실 씨의 국정 농단으로 시작된 촛불 집회는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으로 이어졌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게 되었다. MBC 구성원들조차 MBC 뉴스를 외면하고 체념하던 시기에 김민식 피디는 MBC 상암동 사옥에서 "김장겸은 물러나라"라고 외쳤다. 그리고 이 장면을 페이스북으로 생중계하였다. 이 외침은 구성원들에게 "울림"을 주었고 제작거부와 총파업의 도화선 역할을 하였다. PD수첩 제작진이 제작 자율성 침해에 반대하여 제작거부를 시작하였고, 이후 영상기자 블랙리스트가 공개되면서 제작거부는 전 부문으로 확산되었다. MBC 본부는 역대 최고의 투표율(95.7%)과 찬성률(93.2%)로 9월 4일 총파업에 돌입하였다.

파업 중 이명박 정권의 국정원이 작성한 'MBC 정상화 전략 및 추진 방안' 문건이 공개되었고 MBC 본부는 실제로 실행된 방송 장악 사례들을 폭로하였다. 유익선, 김원배 방문진 이사가 사퇴하였고 새로운 방문진은 김장겸 사장 해임안을 의결하였다. MBC를 재건하기 위한 새로운 사장으로 최승호 사장이 임명되었다. 최승호 사장은 출근 첫날 강지웅, 박성제, 박성호, 이용마, 정영하, 최승호의 해고를 무효하고 2017년 12월 8일 드디어 해고자 전원을 복직시켰다.



이명박 정권의 국정원이 '방송 장악' 문건을 작성하고, MBC 경영진이 그 문건을 이행하면서 MBC 조합원 중 10명이 해고되었고, 110명이 중징계를 받았으며 157명이 유배지로 쫓겨났다. 사내 의사소통이 사라졌고 '사회적 공기' 역할을 해야 하는 공영방송 MBC가 '사회적 흉기'로 전락하였다. 개인의 영달을 위해 공영방송을 사유화한 세력들은 편파적인 왜곡보도를 일삼았고 시민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아픔을 주었다. 이번 파업의 목적은 단순히 김장겸 사장을 몰아내는 것에 있지 않다. 편성과 제작자율성 확보하여 MBC가 '우리 시대의 진정한 목격자' '만나면 좋은 친구'로 돌아와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지난 탄압의 시대를 바탕으로 구성원 개개인이 더욱 단단해져서 앞으로 어느 정권 아래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공영방송사의 틀을 마련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다시 MBC 구성원들의 치열한 고민이 시작되었다. 독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